

# 펌프의 선정법-발주까지의 흐름

API 610 적용 시에는, 발주까지의 흐름은 다음과 같아집니다.

## 1. 수지가 맞아

엔지니어링 회사 등의 발주자는, 어떤 플랜트 건설을 위해서 필요해지는 펌프에 대해서, 펌프 사양서를 붙이고, 펌프 메이커 몇 회사에 견적을 의뢰합니다. 펌프에는 각각 “ITEM No.”라는 고유의 번호가 붙어 있고, 사람으로 말하면 이름에 해당됩니다.

사양서에 있는 펌프의 대수는, 적을 때는 몇 대, 많을 때는 100대를 넘는 일이 있습니다. 펌프 메이커는 1주일 정도로 견적서를 제출합니다. 견적서에는, 펌프의 성능 커브, 외형도, 단면도, 데비에손리스트(없는 경우도 있다), 납입 실적표(없는 경우도 있다), 가격, 납기 등을 포함합니다.

## 2. 가격 교섭(네고시에이션)

견적서를 입수한 발주자는, 가격, 납기, 효율, 신뢰성, 메인テナンス성, 호환성, 고객(최종 사용자)의 의향 등을 고려하여, 2사 정도의 펌프 메이커를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가격 교섭을 합니다.

## 3. 발주

엄격한 가격 교섭의 결과, 일반에게는, 펌프의 가격이 낮은 메이커가 수주합니다. 그리고, 정식으로 발주가 됩니다.

